

# 石油의 世界史

## - 모험가의 시대 -

- 大韓石油協會 弘報室 -

**알레게니** 산맥을 넘어 웨스트 버지니아주나 오하이오주로 이주한 최초의 美國人들은 소금을 만들기 위해 鹽水를 찾기 시작했다. 이와 같이 그들은 그들보다 2000년전에 中國人들이 그랬던 것처럼 鹽水를 찾다가 석유를 발견하였던 것이다.

소금은 당시 육류나 기타 식료품의 저장과 가족의 보존이나 그것을 부드럽게 만드는데 필요불가결한 것이었다. 美國에서는 근대석유산업이 탄생하기까지 반세기(1810~1860) 사이에 석유는 말하자면 製鹽工業의 부산물에 불과했다. 이처럼 석유가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게 된 것은 그것이 鹽井戶를 더럽혀 못쓰게 만들기 때문이었다. 겨우 수명의 상인이 석유를 약용으로 판매하여 돈벌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뿐이었다. 석유의 굴착이 급격히 발전한 것은 19세기 전반에 鹽水의 탐사기술이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유럽에서는 예수會의 修道士인 안베르神父가 1818년 古代中國의 굴착방법에 관한 주목할 만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방법이 급속히 보급된 것은 水井戶의 굴착, 소금의 탐사, 점차 빈번하게 이루어진 지질조사등 세가지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석유의 탐사·굴착기술은 유럽과 美國에서 타산업-특히 철강업-의 발달과 함께 완성되었다. 따라서 그후 전세계에 소개된 「펜실바니아 方式」이라고 불리는 것은

원래 中國式을 개량한 것에 불과했다. 록키산맥의 서쪽에서 이루어진 모든 굴착방식은 中國式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었으며, 노동자들도 中國人이나 日本人들이었다. 이 방법은 「캘리포니아方式」이라고 불렸다.

鹽水를 찾고 있던 美國의 굴착기사들은 석유를 쓸데없는 방해물로 취급하였다. 美國최초의 굴착기사인 라후나형제는 1808년 웨스트 버지니아의 찰스톤근처인 그레이트 카나와 칸트리에서 상당히 우수한 製鹽技術을 완성했다. 그러나 수일후에 井戶에서는 鹽水와 함께 갈색의 기름이 나오기 시작했다. 라후나형제는 그것을 분리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을 발견했다. 즉, 그들은 기름이 수면에 떠오르는 원리를 응용하여, 그것이 貯水槽의 상부에 떠있게 하였다. 그 다음 그것을 근처의 강으로 흘러 보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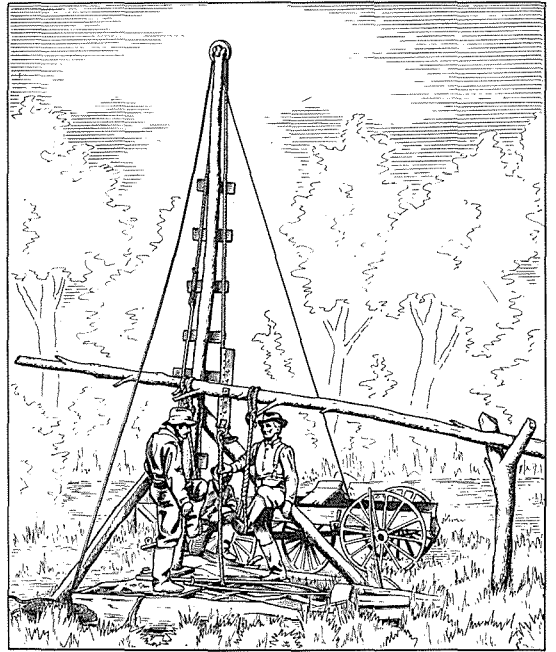
오하이오강의 유역(웨스트 버지니아州와 오하이오州)에서 소금을 채취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히 라후나형제의 방법을 모방하였다. 1830년부터 1860년까지 굴착된 井戶 가운데 적어도 약 30개는 석유로 오염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때로는 불행하게도 석유밖에 나오지 않았고, 그것도 여러번 대량으로 흘러 나왔다. 불운한 탐사기술자도 있었다. 실망한 나머지, 그들은 석유를 근처의 강으로 흘러가게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항상 불이 타오르고 있었다.

때로는 수십킬로에 걸쳐 이들 강이 빨간 불꽃으로 덮혀 있었기 때문에 장관을 이루었으며, 한편으로는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들 강은 또한 개척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 액체의 불은 그들에게 석유라는 것을 한층 더 싫어하게 만들었을 뿐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 요한의 묵시록에 있는 불의 연못을 상상하면서 聖號를 그렸다.

어느 市民은 그의 처가 갖고 있던 약으로 큰 돈을 벌다.

1829년 리메르 스토크톤은 켄터키州的 박스빌근처에서 소금을 채취하기 위해 井戸를 굴착하고 있을 때 油層을 발견하였으며, 거기에서 수천단지의 석유가 분출하기 시작했다. 곧 근처의 칸버랜드 강으로 흘러들어간 석유는 이 유명한 井戸로부터의 분출이 그칠 때까지 40마일에 걸쳐 계속 불길기 타올랐다. 사람들은 이 井戸에 「美國의 井戸(American well)」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리고 「아메리칸 메디칼 오일 어소시에이션」이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약용으로서 밖에는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던 이 기름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피츠버그의 어느 선박회사 소유자의 부인이 담당의사로부터 「아메리카의 기름」 한병을 처방으로서 받은 것은 이 때문이었다. 그녀의 남편인 사무엘 카이아는 펜실바니아의 타렌담에 鹽井戸를 하나 소유하고 있었으며 그곳에서는 아주 별 볼일 없는 기름이 용출하고 있었다. 카이아는 굴착인부들을 실망시킨 이 기름이 의사가 처방해 준 기름과 아주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부인의 처방으로 받은 작은 병에 담은 석유의 냄새를 맡았다. 틀림없이 똑 같았다. 뛰어난 사업가인 이 피츠버그의 시민은 남작한 小瓶과 레테르를 황급히 주문하고, 광고선전용으로는 의심스러운 서정적인 설명서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는 露尺商人들을 모집하여 거리에 내보내거나 이동광고차에 태우고 다니며 「사무엘 카이아의 석유 또는 岩油」라고 이름붙여진 그의 상품을 판매하였다. 판로는 확대돼 갔다. 이미 美國東部에서는 세네카油가 알려져 있었으며 대단한 호평을 받고 있었다. 카이아의 석유는 뉴욕에 진출하여, 며칠사이에 半리터瓶 한병에 1달리씩 4만여병이 팔렸다.



카이아는 그의 과장된 광고가운데서 그의 석유덕택에 『절름발이가 바르게 걷게 되고 장님의 눈이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그의 상품이 모방되는 것을 경계하였다. 그는 또한 은행 지폐를 닮은 상품의 설명서를 인쇄하였으며, 이것이 판매에 큰 역할을 하였다. 네 귀퉁이에는 석유가 발견된 深度를 피트로 표시한 400이라는 숫자를 기입하였다. 鹽臺를 나타내는 도안에는 알레게니강의 제방에서 鹽水를 채취하기 위한 굴착작업중에 석유가 발견되었다고 적고 있다.

역사라고 하기보다 전설이라고 하는 편이 적당한 지도 모르지만, 등화용으로서 석유가 갖고 있는 상업상의 중요성을 오래 전부터 확신하고 있던 뉴욕의 변호사인 토마스 빗세르는 어느 날 약방앞에 펼쳐져 있는 카이아의 설명서를 보고 놀라 걸음을 멈추었다. 그는 알키메데스가 전에 외쳤던 것처럼 다음과 같이 외쳤다. 『『에우레카(나는 발견했다)』. 그는 귀중한 기름을 손에 넣기 위해서는 鹽水를 탐사할 때와 마찬가지로 수백피트 땅속을 굴착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을 그 순간 깨달았다.

그 2년후인 1854년 12월30일에 빗세르와 그의 친구 조나단 에베르스트는 이미 펜실바니아 석유(Rock Oil)

회사를 설립했다. 이 두 사니이는 천연적인 샘이 분출하고 있는 부류와 와트슨회사의 農園을 손에 넣고, 그곳에서 채산성이 있는 대량의 석유를 채취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실패했다. 그들은 굴착을 해도 전혀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이 사업을 포기하였다. 회사의 지배권을 장악하고 있던 주주인 뉴 헤븐의 자본가들간에 의견이 엇갈려, 결국 이 두 사람의 뉴욕사람들은 회사에서 쫓겨났다. 그리고 이곳에서 석유개발권을 계승한 세네카 석유회사가 설립되었다.

유럽에서는 1857년 이후 여러개의 油井이 하노버에서 차례로 굴착되었다. 이 지방은 석유가 흘러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알려져 왔으나, 수량에 있어서 거의 문제가 되지 않았다. 같은 해 캐나다에서도 페트로레이에서 油井 하나가 굴착되었으나, 이곳에서는 극히 소량의 석유밖에 나오지 않았다.

한편 등유의 수요는 크게 증가하였다. 油頁岩과 역청질석탄에서 석유를 제조하기 위한 공장이 다수 건설되었으며, 이들 사업은 융성하였다. 「케로신」이라고 부르는 제품은 배럴당 30~40달러에 팔렸다. 1855년의 「시리만 보고서」에는 석유에서 등유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놀라운 물질로부터 간단한 방법으로 일련의 뛰어난 제품, 특히 우수한 윤활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확실하게 적혀 있다. 시리만<sup>1)</sup> 교수는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 이미 석유로부터 추출하고 있던 광물성 윤활유를 美國에서 재차 발견했던 것이다. 세네카석유회사는 시리만의 작업을 감독하기 위해 원래 기차의 차장이었다가 병으로 퇴직한 에드윈 드레이크를 고용하였다. 그리고 지방사람들의 인상을 강화시키기 위해 그에게 「대령」이라는 가공의 칭호를 붙여주고, 전부터 「오일 크리크」라고 불리우고 있던 유명한 강을 따라 석유지대를 조사하기 위해 타이타스빌에 파견했다. 드레이크는 1858년의 어느날 아침 그 지역에 도착하여, 塩井戶의 굴착에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나이 많은 대장장이 「빌리 스미스伯父」가 지휘하는 굴착반과 계약을 체결했다.

1년간의 노력끝에 1859년 8월28일에 69.5 피트라고 하는 매우 얇은 井戶에서 석유를 발견했다. 드레이크의 井戶는 수만배럴을 산출하는 근래의 大油井과 비교하면

불과 日産 35배럴이라고 하는 소량의 석유밖에 산출하지 못했으나, 당시로서는 상당한 양의 석유를 산출하였기 때문에, 점차 수요가 증대하고 있던 제품시장의 규모에서 보더라도 이미 충분하였다. 실망직전에 유능한 자본가가 지배하고 있던 이 회사는 우선 석유가 발견된 주변의 사람들에게 될 수 있는 대로 선전을 많이 하였다. 회사의 지출을 정당화하고, 주주에게 보고하여 가능한 많은 자본을 모으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 결과 펜실바니아의 이 좁은 지역에 젊은 美國이 생각할 수 있는 온갖 광산업자, 사업체, 금광업자, 사기꾼, 부정투기꾼, 오두막술집주인, 창녀, 엉터리변호사들을 끌어 들였다. 우선 東部에서, 곧 이어 텍사스, 캘리포니아에서 대량의 석유가 분출될 때마다 그들의 거리는 규칙적으로 새로 장식을 하였다.

캘리포니아에서 1848년에서 1849년에 걸쳐 일어났던 전설적인 「金鑛에의 殺到(Gold Rush)」도 그후 10년 뒤에 일어난 「검은 황금에의 殺到」와 비교하면 대단한 것이 아니었다. 新興마을(Boom Town)이 오일 크리크(Oil Creek)를 따라 雨後竹筍처럼 출현했으나, 대부분은 곧 소멸해 버렸다. 오일 시티(석유도시), 페트로리아, 올레오포리스, 파이오니아, 피트롤리움 센터와 같은 이름들이 석유가 땅속에서 분출됨과 아울러 급격하고 무질서하게 등장하였다. 쉬지 않고 굴착이 진행되고 있는 두개의 망대사이로 난 악취를 풍기는 진흙투성의 도로를 따라 호텔이나 살롱이 하룻밤사이에 건설되어 석유사교장으로 변했다. 美國의 東部는 수개월만에 「石油의 狂人」이 되었다.

토지에 대한 투기가 석유를 채굴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돈벌이가 되었다. 그 이유는 원유가격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폭락하였기 때문이다. 1859년 배럴당 평균 20달러로 팔리던 원유는 대량의 원유가 시장에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1860년에는 수센트의 가치밖에 없게 되었다. 가장 혜택을 받아 본 사람은 정제업자들로서 그들은 신속히 油頁岩이나 石炭에서 등화용 기름을 생산하던 것을 집어 치우고, 풍부하고 값싼 이 새로운 원료에 달려 들었다. 수개월만에 油頁岩이나 역청질 石炭의 증류시대는 종지부를 찍었다. 석유가 왕이 되었다. 곧 해결 하

주 1. 美國의 화학자·광물학자(1816~1885). 1853년 부친의 뒤를 이어 예일大學의 화학교수가 되었다. 그의 이름을 유명하게 만든 보고서는 근대석유산업발전의 源流를 이루는 문헌으로 취급되고 있다.

실제로 토지의 소유자가 석유를 탐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즉 그들은 토지를 투기꾼들에게 임대하는 것으로 만족했다. 이 투기꾼들은 그 토지에서 석유탐사가 진행되기도 전에 다른 투기꾼에게 전매하였다.

지 않으면 안될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수송문제였다. 수송방법이 없다면 막대한 양의 석유를 팔 수가 없다. 그리하여 석유는 가장 편리한 용기의 하나인 나무통에 직접 넣어 운반하게 되었다. 밑바닥이 평평한 선박으로 이루어진 수송선단으로 석유통을 수송하기 위해서는 江물이 불어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면 안되었다. 수송도중에 석유통이 서로 부딪쳐 새기도 하여 流失되는 손실이 상당히 많았다. 이 방법보다도 한층 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방법은 석유통을 짐마차에 싣고 가장 가까운 철도역까지 40~50킬로의 거리를 수송하는 것이었다. 수많은 말과 마차의 행렬로 깊이 패인 시골길을 마부들은 진흙과 악전고투하면서 앞으로 나아 갔다. 말은 발이 진흙속에 박히고 마차는 진흙탕속에 빠졌다. 이 때문에 많은 석유통들이 빗물이 고인 도로 한쪽으로 굴러 떨어지고 진흙투성이의 석유가 흘러나오면서 통은 깨져 버리기도 했다. 1862년부터 철도가 석유도시까지 개통되었다. 수송조건은 일부 개선되었으나, 船團과 마차에 의한 수송은 변함없이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

### 捕獲法規 이웃사람으로부터 석유를 가로챈다.

오일 크릭(Oil creek : 石油川)가 바다로 보이는 약간 높은 땅대의 숲(석유탐사용 땅대가 많음을 뜻함)에서는 열광적인 생활이 영위되고 있었다. 鯨油工業의 경우에 행해지던 바와 같이, 「捕獲」이라는 지난날의 海事法規가 油田에 대해 최초로 적용되었다. 이 「捕獲法規」에 의하면, 최초에 도착한 사람이 그 석유가 비록 이웃사람의 소유지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해도 굴착이 분명히 그의 토지에서 이루어 졌다면, 그 토지로 부터의 모든 석유를 채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토지 임차권소유자는 그들의 鑛區 경계선에 가장 가까운 장소를 급히 굴착하여, 이웃사람으로부터 석유를

교묘하게 가로챈다. 이렇게 해서 그들자신의 매장량을 확대해 나갔다.

석유탐사지역에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땅대가 들어 찼다. 때로는 지면을 건지 않고, 땅대의 널판지위를 통해 땅대를 순회할 수 있을 정도로, 땅대들이 서로 이웃하여 건설되었다. 실제로 토지의 소유자가 석유를 탐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즉 그들은 토지를 투기꾼들에게 임대하는 것으로 만족했다. 이 투기꾼들은 그 토지에서 석유탐사가 진행되기도 전에 다른 투기꾼에게 전매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굴착기사에게 임대되었다. 돈벌이의 기회를 많이 만들기 위해 토지소유자들은 그들의 토지를 더 이상 세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작게 분할하여 임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사는 그로 인해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고 점차 증가하였다. 석유 발견의 소식이 전해지면 굴착기계는 새로 짐을 꾸렸다. 투기꾼들은 토지소유자의 집으로 달려가서 賃借權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그 토지를 세분하여 권리를 다시 전매함으로써 수시간만에 돈벌이를 할 수 있었다. 투기꾼들은 아침에 팔았던 권리를 당일로 10배나 비싸게 매입하고, 저녁에는 그 배로 다시 팔았다는 예가 희귀하지만은 않았다. 왜냐하면 美國에서는 토지의 소유자는 지하 및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모든 鑛物의 소유자이기도 했기 때문이며, 따라서 이러한 비정상적인 압거래가 널리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보통 누구든지 성공한 예에 대해서는 그것을 상기하지만, 수많은 실패에 대해서는 거의 화제에 올리지 않는다. 석유개발의 성공 이면에는 절망적인 空井에 수일동안 그들의 전재산을 날려버린 딱한 처지의 수많은 탐광업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누가 알고 있을 것인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이들 「땅대의 숲」은 막대한 낭비의 상징이었다. 채산성이 있는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井戸가 수개정도만 있으면 충분한 장소에서 수백 또는 수천 명의 군소개발업자들이 서로 경쟁을 벌였다.

석유붐은 얼마 안되어 美國北部에 상당한 번영을 가져다 주었다. 검은 황금에의 러시 1년후에 발발한 南北戰爭 때에 美國의 등유수출은 南部의 線花수출이 중단됨으로써 받은 파국적인 타격을 극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상태는 이 방법으로 야기되는 낭비를 자각하게 된 1930년까지 美國의 여러곳에서 반복되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곳에서 석유가 발견되고, 석유가 地表에 모습을 나타내게 되고, 그 존재를 나타내는 징후는 무엇인지 아무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美國최초의 석유인들 사이에서는 『석유는 그것이 발견된 장소에 존재한다.』라는 말이 유행했다. 사람들은 전부터 알려져 온 분출장소 또는 瘡瘻 분출하고 있는 장소의 주변을 중점적으로 굴착하였다. 다음으로 그 주변일대를 굴착하였다. 검은 황금의 초창기에 만들어진 판화에는 그 토지에 도착한 탐광업자가 모자를 빙빙 돌려 모자가 떨어진 지점을 굴착하기로 결심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성공하는 경우가 있으면,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 농부, 투기꾼, 술집주인들은 확실히 큰 돈을 벌었다. 탐광업자들은 잘되든 안되든 운에 맡기고 시도해 보았다. 석유인들이 특별히 사용하고 있는 와일드 캐트(wildcat)라는 말은 處女地의 試掘井을 의미했다. 美國파이오니어들의 民俗學에 나오는 「와일드 캐터」(wild catter)는 자신이 벌은 돈만으로 차레차레 새로운 돈벌이를 시도하는 선천적으로 호기심이 매우 강한 승부사를 의미하였다.

석유붐은 얼마 안되어 美國北部에 상당한 번영을 가져다 주었다. 검은 황금에의 殺到 1년후에 발발한 南北戰爭 때에 美國의 등유수출은 南部의 線花수출이 중단됨으로써 받은 파국적인 재정적 타격을 극복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그때 뉴욕에서는 『석유가 왕이다. 線花는 왕이 아니다.』라는 슬로건이 나돌았다.

등유의 수요는 美國뿐만 아니라, 전세계, 특히 油井이 별로 없는 유럽에서 크게 증가하였다. 펜실바니아의 원유에는 등유분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위험하고 쓸모없는 揮發分으로 생각되었던 휘발유분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정유공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가벼운 휘발유를 가까운 하수구나 하천에 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서는 종종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북부 정제업자들은 등유속에 휘발유분을 혼입하였기 때문에 폭발이나 死傷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전반적으로 석유탱크, 油井, 저장등이 무질서하게 난립하고 있어 위험이 항상 따라 다녔다. 어떠한 사소한 부주의도 뜻밖의 화재의 원인이 되었다. 일단 화재가 발생한 경우 석유생산을 위해 나무로 만든 망대, 발판, 계단등으로 복잡하게 밀집되어 있어 완전히 진화하기는 힘들었다. 화재는 油井에서 저유탱크로, 저유탱크에서 정유공장으로, 정유공장에서 民家로 번지면서 큰 재해를 야기했다.

美國의 어느 지방에서는 그러한 영웅시대에 만들어진 이상한 모양의 건축물의 잔해를 지금도 볼 수 있다. 油井 또는 탱크의 화재 가운데에서 惡意와 사보타지에 의한 것이 전체화재건수의 얼마를 차지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그러나 확실한 사실은 가장 야만적인 풍습이 이 무법지대를 지배하였고, 각자가 제멋대로 正과 不正을 결정하였고, 힘이 승리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일들이 꺼리낌없이 통했다. 「捕獲法規」외에 보통 인정되고 있던 유일한 다른 법칙은 가장 야만적인 「정글의 법칙」이었다.

최초의 원거리파이프라인이 1865년에 가동되었을 때, 일감을 빼앗긴 마부들은 파이프라인의 운영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선동하여 사보타지를 일으키게 함으로써 이에 즉각 저항하였다. 따라서 파이프라인의 최초건설자인 반짓 켈은 파이프라인의 全沿線에 배치할 감시인을 고용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파이프라인이 완성될 때마다 수백명의 마부들이 실업자가 되었다. 그들은 저주스러운 導管을 폭파하는 것 외에 아무 것도 생각하지 않았다.

파이프라인은 처음에는 철도역까지만 부설되었기 때문에 철도회사는 계속 운임수입이 들어오는 이 파이프라인을 즐거운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그러나 록펠러가 油田

과 정유공장을 직접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하려고 하자, 사정은 돌변하였다. 철도회사는 그들을 파산시킬지도 모르는 이 수송방법에 대하여 가장 난폭한 수단을 동원하여 반대하였다.

이 무렵 「오일 스카우트(oil scout)」라고 부르는 기묘하고 무서운 사람들이 등장하였다. 美國의 위대한 역사가인 폴기단스는 그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썼다. 『직업적인 석유스파이는 켈리 그로부에서 처음으로 중시되었다. 그전에는 새로운 油井과 油田에 대한 정보의 입수는 지방신문에 의존하고 있었다. 브라트 필드 油田의 굴착개시 이후 석유에 관한 투기는 점차 늘어났으며, 시장은 좋은 나쁜 사람들의 소문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무역업자, 소매상인 및 투기꾼들은 그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油井의 감시와 日報作成을 위해서 훈련된 사람을 고용하였다. 석유스파이는 「신비적인」 油井, 호텔, 마구간등을 배회하면서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을 감시하고, 우체국에서 受·發信되는 통신을 엿듣고, 산출량을 알아내기 위해 油井의 防護柵 안으로 잠입하였다. 그러나 「신비적인」 油井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감시가 엄중하였기 때문에 스파이는 어느정도의 거리에서 잠복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가냘픈 작은 북소리만 들려도 소리나는 쪽으로 총탄이 발사되었다.』

「오일 스카우트」는 또한 굴착결과를 자신이 최초로 알기 위해 「와일드캐트」(wildcat)라고 부르는 試掘井의 동정을 탐색하기도 하였다. 만약 굴착의 결과가 확실한 것이라면, 스파이는 즉각 고용주에게로 달려갔다. 고용주는 그 발견이 널리 알려지기 전에 가능한 한 주변의 모든 지역을 賃借하기 위해 그의 대리인을 그 지방으로 급파하였다.

이 방법에 의하여 막대한 투기가 가능하였다. 원유의 가격은 油田이 발견될 때마다 배럴당 수달러에서 수센트씩 매일 하락하였다. 제품 가운데서도 특히 케로신(등유)의 가격은 수요가 항상 왕성하였고 당시 수출이 美國 제품에 무한한 판로를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층 안정되어 있었다. 등유의 용도는 灯火用에서 주방·난방용으로 바뀌고 있었기 때문에 최초로 만들어진 스토브는 순식간에 수십만대가 팔렸다. 램프는 가스燈과의 경쟁에 대비하여 개량되었으며 이것은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처음 며칠간은 램프를 구입한 모든 사람들에게 상당한 양의 등유가 景品으로 제공되었다.

오일 크리크계곡의 산유량은 최초 10년동안에 연간 2000배럴에서 500만배럴로 늘어났으며, 探鑛은 웨스트 버지니아, 오키오, 인디애나, 이밖에 켈터키와 칸사스에서 좋은 결과가 나타나면서 점차 확대되었다. 이에 반해 록키산맥의 서부에서는 1864년 이후 캘리포니아에서 여러번 探鑛이 이루어졌으나, 처음에는 이렇다 할 큰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1886년 이후 캘리포니아는 大生産州로서 유명하게 되었다. 일부 州는 주기적으로 생산량을 보고하였으며, 펜실바니아의 「油田地帶」라고 부르는 지역은 19세기말에 텍사스가 등장할 때까지 美國은 물론 전세계에서 가장 큰 産油地域이었다.

『神은 세계를 창조하였으나 록펠러는 그것을 재편성하였다.』

**석** 유산업의 무정부상태는 석유산업이 시작된 이후 가장 유명하고 또 최대의 論客인 테이든 록펠러의 출현으로 종식되었다. 油井에서 가깝고, 경제적·인구통계적으로 보아 비약적인 발전도상에 있는 지역의 중심지였고, 그리고 美國東部지역의 통신·교통의 중요한 거점의 하나였던 오키오주 클리브랜드市에 집을 지은 록펠러는 사무엘 안드류스 및 모리스 크라크와 협동하여 작은 製油所인 엑셀시아 왁스를 경영하였다. 日産505배럴이라는 현재의 기준으로 보면 아주 보잘 것 없는 능력을 갖고 있는 엑셀시아 왁스는 클리브랜드에서 최초의 製油所였다. 1870년 록펠러와 안드류스는 새로운 협력자들과 「오키오 스탠다드석유회사」를 설립하였다. 이 석유계의 미래 거물은 일관된 품질의 제품, 즉 표준적인(standard)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데 전념하였다. 이것이 社名을 선택한 동기였다.

설립후 곧 이 새로운 회사는 뉴욕주 부르크린에 있는 다른 정유공장을 매수하고, 모든 종류의 부대적 활동, 즉 製材·나무통(석유통) 제조·선박운수·탱크차·바지船·철도의 支線·倉庫業 등 각종사업을 산하에 두었다. 사업이라는 것은 원료부터 그것이 제품이 되어 소비자의 손에 도달하기까지 모든 종류의 활동을 일관성있게 관리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록펠러의 큰 이상이었다.

1872년 클리브랜드의 정제업자들은 록펠러의 發意에 따라 서로 협력하여 수송업자에게 대항, 운임인상에 반대 투쟁을 벌였다. 이미 「오키오 스탠다드석유회사」는 7

~ 8社를 합병하여, 자본금이 100만달러에서 250만달러로 늘어났다. 그후 10년동안에 존 D. 록펠러는 석유업을 재편성·쇄신하기 위하여 중요한 정제업자·수송업자·판매업자들을 산하에 끌어들이려고 계속 설득하였다. 1882년 1월 2일 40개사간에 「스탠다드 오일 트러스트(Standard Oil Trust)」설립의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 보다 앞서 1872년에 클리브랜드의 정제업자와 털도회사가 제휴하여 석유의 수송·정제를 독립적으로 떠맡기 위한 「사우드 임프루브먼트 회사」를 설립한다는 것이 보도되었기 때문에 油田지대에 폭동이 일어났으나, 이 폭동은 40일동안 엄격히 봉쇄되었기 때문에 실패하였다. 1882년에 설립된 트러스트는 현재 처해 있는 상황, 즉 다른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여러가지의 활동을 「신뢰하는」지도자의 손에 위탁한다는 것을 법률상의 절차에 따라 협력자들에게 정식으로 인정하도록 한 것이었다. 結合을 의미하는 상호간의 「신뢰」—英語로 Trust—는 그후 독점을 의미하게 되었다.

존 록펠러의 권위적인 성격은 모든 사람들에게 畏敬心을 불러 일으켰다. 그의 뛰어난 조직적 수완은 불과 2~3년사이에 수천의 중소기업 또는 家内企業에 이르는 모든 기업을 이 러스트에 참가시킨 것으로도 알 수 있다. 그가 실행한 방법은 사람들로 부터 공격·비난·칭찬을 함께 받았으나 그것은 현대경제사회에서도 충분히 통용되는 것이었다. 100년이 지난 현재도 석유산업은 역시 존 D. 록펠러의 방법을 답습하고 있다.

그는 일찌기 전설상의 인물이 되었으며, 그를 절찬 또는 매도하는 많은 이야기식의 傳記가 나왔다. 『神은 세

계를 창조하였으나, 록펠러는 그것을 재편성하였다. 또는 『드레이크는 땅속에서 석유를 파냈으나, 록펠러는 석유에서 금을 짜냈다』라는 격언까지 생겼다.

大石油會社에 대한 가장 격렬한 반대자의 한사람인 美國의 左翼業조합주의자인 하비 오크너는 록펠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는 성실한 경쟁상대에 대해서는 그 회사를 매수하려고 시도하였으며, 그것이 실패한 후가 아니면 파산시키지 않았다. 그가 「스탠다드회사」주식으로 매수대금을 지불하여, 그 경쟁상대는 항상 유복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금전은 권력보다도 확실히 관심이 희박했으며, 권력은 조직속에서는 효과보다도 흥미를 끌지 못했다.

효과라고 하는 말은 근대석유산업의 이 놀라운 천재건설자가 가장 즐겨 사용한 말이다. 1897년에 그는 트러스트를 해산하고 持株會社인 스탠다드석유회사를 설립하였다. 곧이어 「스탠다드」에 대하여 다른 大會社가 20세기에 설립되었다. 1901년에는 당시 세계 최대라고 일컬어지던 텍사스州의 스피들토프油田이 발견되어, 록펠러의 세력권 밖에서 검은 황금에의 새로운 殺到가 일어났다. 이로 인해서 국제적인 大會社중의 2개사, 즉 걸프석유회사와 텍사스 석유회사가 탄생하였다. 이밖에도 10여개의 小巨人이 탄생하였다. 1911년에 록펠러의 持株會社는 法에 따라 해체되었으며, 「스탠다드」라고 하는 모든 회사는 각각 독립하였다.

이처럼 근대석유산업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사건이 美國에서 전개되고 있는 사이에,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격렬한 움직임이 예상되고 있었다. □(계속)

주2. 美國의 언론인 「石油帝國」「메론家の 富」 등 美國의 재벌을 분석한 많은 저서가 있다.

## 낭비없는 알뜰피서

## 가족끼리 오손도손